



동해시평생교육센터



수신 동해시장(홍보소통담당관)
(경유)

제목 **보도자료 홍보 요청(2022년 도서관 지혜학교 운영)**

「2022년 도서관 지혜학교 운영」에 따른 보도자료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보도자료(도서관 지혜학교 운영 관련) 1부.
2. 2022년 「도서관 지혜학교」 수강생 모집(안내문) 1부. 끝.

동해시평생교육센터소장

복심도서관팀
장

평생교육센터 전결 2022. 6. 13.
소장

협조자

시행 평생교육센터-4105

접수

우 25781 강원도 동해시 감추7길 52, (천곡동, 동해시평생학습관) / www.dh.go.kr

전화번호 033-539-8251 팩스번호 033-530-2749 / lb8911@korea.kr / 대국민 공개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

배포일시	2022. 6. 10.(금)	담당부서	평생교육센터	소 장	전춘미(2470)
			(북삼도서관)	팀 장	김병대(8251)

동해시, 2022년 「도서관 지혜학교」 공모사업 선정(3년 연속)

- 인문 프로그램 ‘인간은 진정으로 이성적 존재인가?’ 시립북삼도서관 강연

-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2022년 도서관 지혜학교」가 3년 연속 공모사업 운영 기관으로 선정됐다.
- 도서관 지혜학교는 신중년과 활동적 고령자층의 주체적 인문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인문대학과 도서관을 연계한 인문심화 프로그램을 제공해 인문학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다.
- 동해시립북삼도서관은 강원대학교 철학과 전석환 교수와 함께 ‘인간은 진정으로 이성적 존재인가?’라는 주제로 12회의 인문학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 이번 프로그램은 인문학을 통해 삶과 인생의 가치를 이해하고, 철학적 성찰을 통해 타자와 공존하는 지혜들을 사유하며, 철학적 문제의 정답을 찾아가는 방법을 터득하면서 행복을 가꿔가는 시간이 될 예정이다.
- 수강생 접수는 6월 16일부터 시립도서관 홈페이지 - 문화행사 - 문화강좌 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인문학에 관심 있는 지역주민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북삼도서관(☎ 530 - 2490)으로 문의하면 된다.
- 전춘미 평생교육센터소장은 “도서관 지혜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독서문화 프로그램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인문독서문화 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해시립북삼도서관」
2022년 「도서관 지혜학교」 수강생 모집

인문학을 통해 삶의 지혜를 찾고자 하는 신중년 및 활동적 고령자층의 삶과 인생의 가치를 이해하고, 철학적 성찰을 통해 타자와 공존하는 지혜들을 사유하며 행복을 가꿔가는 「도서관 지혜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프로그램 주제 : **인간은 진정으로 이성적 존재인가?**
 - 부제목 : 인간과 이성, 그리고 지혜
- 운영기간 : 7.7. ~ 9.22.(12회)/매주 목요일 18:30~21:30(3시간)
- 접수기간 : **6. 16(목) 10:00 ~ 6.30(목) 18:00**
- 접수방법 : **도서관 홈페이지 ⇒ 문화행사 ⇒ 문화강좌신청 ⇒ 북삼도서관 ⇒ 기타**
- 강 사 : **전석환(강원대학교 교수)**
- 모집인원 : 동해시민 25명(인문학에 관심 있는 누구나)
- 강의내용

회차	일 짜	주 제	주제도서
1	7. 7(목)	인간은 진정으로 이성적 존재인가? - 인간과 이성, 그리고 지혜 -	막스 호르크하이머, 『도구적 이성 비판』
2	7.14(목)	신화(Mythos)로부터 이성(Logos)까지	유발 하라리, 『사피언스』 오토프리트 회페 엮음 『철학의 거장들 1』
3	7.21(목)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다.’	오토프리트 회페 엮음 『철학의 거장들 1』
4	7.28(목)	‘이성은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능력이다.’	오토프리트 회페 엮음 『철학의 거장들 1』
5	8. 4(목)	‘아는 것이 힘이다.’	장희익, 『과학과 메타과학』
6	8.11(목)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 데카르트(Descartes, 1596~1650)	오토프리트 회페 엮음 『철학의 거장들 2』
7	8.18(목)	‘인간은 백지상태의 정신으로 태어난다.’ - 로크(Locke, 1632~1704)	오토프리트 회페 엮음 『철학의 거장들 2』
8	8.25(목)	‘이성 능력의 한계를 정확히 아는데 이성의 의미가 있다.’ - 칸트(Kant, 1724~1804)	오토프리트 회페 엮음 『철학의 거장들 3』
9	9. 1(목)	‘현실적인 것은 이성적이요, 이성적인 것은 현실적이다.’ - 헤겔(Hegel, 1770~1831)	오토프리트 회페 엮음 『철학의 거장들 3』
10	9. 8(목)	헤겔(Hegel) 이후 현대철학의 전개 과정 안에서 본 이성 개념	오토프리트 회페 엮음 『철학의 거장들 3』
11	9.15(목)	도구화의 관점에서 본 이성 개념	막스 호르크하이머, 『도구적 이성 비판』 M. 호르크하이머/ W.아도르노 『계몽의 변증법』
12	9.22(목)	강의 참가자의 글쓰기와 발표 및 토론	최훈, 『라플라스의 악마, 철학을 묻다』

- 수 료 : 8회 이상 출석 시 수료증 발급
- 문 의 : 북삼도서관(☎ 530-2490)